

쓰치자키의 관문: 포트타워 세리온

포트타워 세리온은 쓰치자키를 여행하려는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거점입니다. 크루즈 터미널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아키타 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 내에는 런치나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지역의 특산품 및 전통 공예품을 취급하는 쇼핑 구역도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타워 입구 근처 노점에서는 현지의 인기 명물인 알록달록한 장미 모양의 바나나 맛과 딸기 맛 아이스크림을 정기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높이 100m의 전망대는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연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해상풍력 발전기를 비롯한 주변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맑은 날에는 남쪽 지평선 위의 조카이산(2,236m)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남동쪽으로는 과거 아키타 성이 있던 큰 숲으로 뒤덮인 언덕 너머로 아키타시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사하라의 우동 자판기

포트타워 세리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 하나가 따뜻한 국물이 있는 우동과 소바를 판매하는 자판기입니다. 이 독특한 자판기는 원래 근처의 사하라 상점이라는 가게에 있던 것인데, 이 가게는 주로 아키타 항에 정박하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식료품, 옷, 생활필수품 등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1973년 애매한 시간대에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점주가 이 자판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자판기는 풍미 가득한 국물과 현지에서 만든 면으로 오랫동안 지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16년 사하라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이 자판기는 지금의 장소로 이전되었습니다. 자판기는 1980년 이후 생산되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수리용 부품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판기의 인기는 여전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 날에는 200그릇이나 팔린다고 합니다. 포트타워 세리온에서는 우동 국물 맛 아이스크림과 이 자판기의 로고가 들어간 상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